



순천만 찾은 '겨울 진객' 흑두루미 11월의 첫날인 1일, 순천만 습지공원에 천연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가 찾아와 갯벌 위를 날고 있다. 순천만자연습지공원에 따르면 같은 시기 지난해보다 많은 1700여마리의 흑두루미들이 이곳에 터를 잡고 겨울나기에 들어갔다. 본격적인 겨울이 되면 개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유커 맞을 준비 됐다

<중국인 관광객>

관광객 모집, 종교류 재개, 팸투어, 크루즈·전세기 유치...

한·중 해빙무드에 관광 재개 움직임...대응책 마련 분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촉발된 한·중 갈등이 봉합되면서 유커(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관광 재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최근 개설한 상해사무소를 중심으로 관광객 모집과 신규 교류 증대 등에 나서고, 전남도는 중단된 중국 전세기·크루즈 유치, 온라인 전남여행상품 판매 재개 등에 힘을 쏟고 있다.

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양 시도

는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으로 축소, 중단됐던 행사들을 재검토하고 '중국 친해지기'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광주시는 오는 12월 1일 개소를 앞두고 있는 중국 상하이사무소를 중심으로 중국 시장 개척과 통상 지원, 투자유치, 협력 교류 등에 나선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에는 광주의 중국 거점인 광주차이나센터의 문을 열 예정이다. 광주차이나센터는 향후 중국 정보 제공 및 교육, 비즈니스 컨설팅, 중국인 대상 한국 소개, 상담콜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광주시는 또 전남도와 함께 무안공항~광저우 간 직항노선 개설에 나서는 한편 오는 17~19일 중국 원난성 쿤밍에서 열리는 2017 중국국제여유교육회(CITM)에 참가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 6월 2017 하계다보스포럼에서 유장현 시장이 광저우 당서기와 면

담해 직항노선 개설 합의 후 실무단까지 파견했으나 사드 추가 실전 배치에 따라 협의가 중단된 바 있다. 광주시는 사드 배치 이후 광주·우한 우호협력도시 10주년 기념행사 규모 축소, 광주·광저우 자매도시 스포츠 교류행사 취소, 정월설음악회 중국 방문공연 취소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일부 교류와 국내 행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전남도는 중국 단체 관광객을 위한 항공·크루즈 유치를 전격하고 있다. 사드 여파로 끊긴 무안~베이징, 무안~상하이 항공노선의 재개와 중국 항저우·청두·충칭·정저우 등 성급도시 중심의 전세기 유치를 위해 현지 여행사 마케팅에 나섰다.

또 압웨이·완메이 등 글로벌 기업의 사원 단체관광 프로그램으로 위한 크루즈 유치 활동도 벌이고 있다. 사드 갈등 이전인 지난해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전남을 방문한 유커는 2만7000여명이었고, 크루즈 관광객은 3300명이었다. 이들은 주로 목포·여수·순천·담양 등지를 관광했다. 중국 현지 마케팅도 강화하고 있다. 오

는 7일까지 상하이 산악크루즈 박람회에 참가해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12월에는 베이징·상하이에서 현지 여행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씨트립·바이징 등 온라인여행사를 통한 '전남여행상품' 판매 재개도 추진하고 있다.

해빙무드는 지방정부 간 공공 교류에서 먼저 감지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달 24~27일 나흘간 사드 여파를 뚫고 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중국 9개 지방정부 고위급 공무원 초청 교류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교류회의에서 중국 저장성 천안(陳安) 부주임은 "지방정부 간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며 "신춘음악회, 실크로드 관광 문화전, 신안 해저유물선 문화전 등을 공동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또 중국 남보대학 대표단은 오는 3일까지 수산 교류회의를, 장시성 청소년교류단은 오는 6일까지 흡스데이·역사유적지 탐방 등을 전남에서 펼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투표 바람직”

文대통령 국회 시정연설...한반도 평화 5원칙 천명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헌 내용 가운데 기본권과 지방분권을 먼저 언급하면서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헌이 포함하는 다양한 이슈 중에서 여야의 이견이 가장 달한 부분을 부각해 지지부진한 개헌논의에 속도를 붙여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안보 위기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정착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한반도 평화실현 5대 원칙을 천명했다.

경제 문제와 관련,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사람 중심 경제론’에 대해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모든 사람과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체제”라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과 국민 가져본 소득을 늘려주는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며 “혁신성장 예산을 중점 반영했다”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적폐청산과 국가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도 나타났다.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고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는 것이 적폐청산”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하고 검찰도 국민만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고흥·곡성·구례·신안군 저체온증 사망 위험지역

행안부 ‘한파 지수’ 첫 산출

고흥과 곡성·구례·신안군 등 전남 4개 지자체가 겨울철 한파 발생 시 저체온증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03~2015년 겨울철(11~3월) 시·군·구별 저체온증 사망자와 한파 일수, 지역 고령화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파 위험지수’를 산출한 결과 전국 23개 군이 위험지역으로 구분됐다. 한파 위험지수는 인구 10만 명당 저체온증 사망자 발생 정도를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값이 클수록 저체온증 사망자가 많이 나올 수 있음을 뜻한다.

전체 1~5등급 중 위험도가 상위 10%인 5등급은 고흥과 곡성·구례·신안군 등 전남 4개 지자체를 비롯해 전북 무주·순창·임실·장수·진안군 등 모두 23개 지자체다. 이 지역의 한파 위험지수는 최저 2.6에서 최대 4.7이다. 4등급 지역으로는 나주시와 강진·

장성·담양·보성·영광·완도·장흥·진도·해남·함평·화순 등 전남지역 12곳의 지자체가 포함됐다. 전남지역 22곳 시·군 중 72%가 넘는 16곳이 한파 위험지수가 높은 곳으로 분류된 것이다. 이는 전남의 고령인구 비율이 높는데다, 독거노인과 농림어업 종사자 비율 등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파 사망자의 경우 기후적 요인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적으로도 노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행안부는 분석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한파 위험지수가 높은 지역에서는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종합 지원센터, 보호시설 등을 운영하는 등 한파 피해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 2003년~2015년 한파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11월 3주차부터 사망자가 증가하기 시작해 12월 4주차~1월 1주차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 60대 이상이 50%, 40~50대가 4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권일기자 cki@

무안출발 해외탐방

가을 단풍놀이!! 겨울 온천여행!! 친구 & 가족과 함께 무안공항에서 떠나세요!!

◆ 출발일 : 2017년 10월 13일(금) ~ 2018년 5월 18일(금)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전화 : 062-234-3222
FA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대표이사 최금환

일본 기타큐슈(야마구치, 히로시마) 직항 전세기

2017. 10. 13(금) ~ 2018. 3. 30(금)
주 3회 출발 / 화요일(3박4일) 금, 일요일(2박3일)

하계 [10. 13(금)~10. 27(금)] 무안(18:20)→기타큐슈(19:30)→기타큐슈(20:00)→무안(21:20)
동계 [10. 29(일)~03. 30(금)] 무안(18:00)→기타큐슈(19:10)→기타큐슈(19:40)→무안(21:00)

항공 3일

북 규슈 온천펜션 **499,000원** ~
북 규슈 **549,000원** ~
야마구치 **559,000원** ~

항공 4일

북 규슈 **749,000원** ~
야마구치 **769,000원** ~

다낭·후에·호이안 직항 전세기

2017. 11. 17(금) ~ 2018. 5. 18(금)
주 2회 출발 / 매주 화, 금요일 출발

화 출발 무안(08:05)→다낭(10:40) / 다낭(14:40)→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다낭(00:10) / 다낭(01:05)→무안(06:55)

[실속] 다낭·후에·호이안
3박4일(화 출발) **699,000원**~ / 3박5일(금 출발) **799,000원**~

[실속] 다낭·호이안·하트프링
3박4일(화 출발) **699,000원**~ / 3박5일(금 출발) **799,000원**~

[노팁·노음선] 다낭·후에·호이안
3박4일(화 출발) **999,000원**~ / 3박5일(금 출발) **1,049,000원**~

[노팁·노음선] 하트프링오션+바나산국립공원+호이안야경
3박4일(화 출발) **949,000원**~ / 3박5일(금 출발) **1,049,000원**~

※ 다낭 여행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금액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업체 등록번호 : 제증다2003-1호
◆ 공동조진 : 여행객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예외상품 : 1억 원, 국내상품 5천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철버스 / 전 지역 ◆ 상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객제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해설)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 경비업(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작곡 비저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